

롯데, 호국보훈의달 맞아 군 장병 지원 나서

롯데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군 장병 지원사업을 펼친다. 롯데지주는 육군본부에 올해 신실한 '자랑스러운 육군 가족상'을 지원한다. 군인 및 군무원 배우자를 대상으로 연간 100명을 선발해 상급 및 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이달부터 1년 간 휴가증을 소지한 휴가 병사는 롯데월드 어드벤처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총알배송' 끝판왕이 떴다

11번가 "오늘 주문한 상품 오늘 받아보세요"

낮 12시까지 주문한 상품에 해당 배송 지역은 서울시 전역과 고양 등 유통가 배송 경쟁 치열해질 전망이다



11번가가 빠른배송 서비스를 연이어 선보이고 있다. 사진은 4월 내놓은 오늘주문 내일도착 서비스. 사진제공 | 11번가

"당동! 고객님의 소중한 상품이 도착 되었다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주문한 상품이 오늘 바로 배송된다. 전자상거래(e커머스)를 중심으로 한 유통가의 배송 경쟁이 더 뜨거워지고 있다. 익일배송과 새벽배송을 넘어 당일배송 서비스까지 속속 등장하고 있다.

3월 미국 뉴욕증시에 입성한 쿠팡의 성장을 이끈 '로켓배송'처럼 빠른배송 경쟁력을 강화해 이용자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요즘은 특히 대형마트나 물류 등 다른 관련 기업군과의 제휴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그 성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 '오늘도착' 11번가, "적용 상품 확대할 것"

11번가는 자정부터 정오까지 주문한 상품을 당일 바로 받아볼 수 있는 '오늘도착' 서비스 '오늘도착' 서비스를 제공한다. 1일 밝혔다. 지난 달 25일 서비스 오픈 이후 일주일 간의 안정화 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나섰다.

오늘주문 오늘도착 상품은 11번가 파주 물류센터에 입고된 판매자 위탁 상품과 일부 11번가 직매입 상품 중 소비자

들이 빠른 배송을 원하는 상품 위주로 구성했다. 주로 게임기나 노트북, 휴대전화, 음향기기 등 디지털 제품과 생필품, 가공식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11번가에서 주문 당일 발송하는 상품을 모아 놓은 '오늘발송' 탭에서 오늘주문 오늘도착 상품을 확인할 수 있다. 매일 새로운 상품이 자정부터 정오까지 노출된다. 11번가는 당일배송이 가능한 전체 130여 개 상품 후보군에서 매일 2~4개씩 엄선한 상품 한정수량을 할인 가격에 제공한다.

배송가능 지역은 서울시 전역과 고양,

남양주, 구리, 광명, 성남, 수원, 용인시 일부지역이다. 배송 가능지역 내 주문은 당일 도착하고, 그 외 지역은 당일 발송돼 다음날 받아볼 수 있다.

11번가는 당일 배송을 위해 물류기업 SLX택배와 손잡았다. SLX택배는 수도권 지역에서 새벽배송과 당일배송 등 빠른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1번가는 오늘주문 오늘도착 서비스의 상품과 카테고리를 확대해 갈 계획이다.

● "물치면 빨라진다" 플랫폼-물류 협력 강화

11번가는 최근 관련 기업과 협력해 배

송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앞서 4월에는 평일 자정까지 주문한 상품을 우체국 택배로 바로 다음날 받아볼 수 있는 '오늘주문 내일도착' 서비스를 오픈했다. 또 '오늘장보기' 전문관을 통해 이마트몰과 홈플러스, GS프레시몰의 당일배송 서비스와 SSG닷컴, GS프레시몰의 새벽배송을 제공하고 있다.

이진우 11번가 영업기획담당은 "당일배송을 포함해 새벽배송과 익일배송까지 11번가에서 고객이 빠르게 상품을 받아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배송 서비스가 차별적 경쟁력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적용 상품과 배송지역이 아직 한정적이지만 11번가의 오늘주문 오늘도착 서비스 오픈으로 유통가의 빠른배송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전국 단위 자체 물류시스템을 강점으로 한 쿠팡을 견제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과 대형마트를 포함한 오프라인 플랫폼, 물류 등 각각의 장점을 가진 관련 기업들 간 협력이 늘어날 전망이다.

대표적인 예가 네이버다. 네이버는 지난 교차 합병을 맺은 신세계와 신선식품 장보기 서비스를 오픈할 계획이며, CJ대한통운과는 생필품을 대상으로 오늘주문하면 다음 날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건강레길 | 우리네 주치의의 건강학

거북목...정형외과서 근원적 치료받아야

앞으로 목을 내민 모습이 거북이 같다고 거북목증후군이라 불리는 거북목(일자목) 측만은 C자형 경추 정렬이 소실되면서 생기게 되는 질환이다. 거북목은 장시간의 PC 및 스마트폰 사용, TV 시청 등이 주원인으로 지목된다.

거북목으로 인한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목 통증이다. 근육을 감싸고 있는 근막에 통증 유발점이 생겨 어깨, 등, 허리 등에도 통증이 생길 수 있다. 이외에 목과 어깨가 뻣뻣하게 굳고, 눈의 피로감과 팔저림, 어깨와 등으로 이어지는 통증, 수면장애,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잦은 두통 등의 증상이 있으면 거북목을 의심할 수 있다.

거북목 증상을 방치해 장기화되면 목뼈에 해당하는 경추 부위의 디스크가 이탈하는 목디스크(경추 추간판 탈출증)로 발전할 수 있다. 목 통증, 어깨 통증, 손 저림 등을 동반하는 목디스크가 생기면 만성 통증에 노출될 우려가 커지며 심할 경우 보행장애, 하반신 마비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거북목은 주사치료와 도수치료 등의 비수술적 치료 방법을 통해 치료할 수 있다. 신경주사치료는 신경 주위로 소염작용을 하는 약물을 주사해 염증과 부종을 경감시키는 치료법이다. 프롤로주사는 인대의 삼투압보다 높은 약물을 투입해 인대나 근육의 힘을 강화시켜 목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인대강화치료법이다.

주사치료와 함께 병행될 수 있는 도수치료는 전문 치료가 딱딱해진 관절을 풀어주고 관절 부위를 자극해

통증 및 질환 등을 개선하는 치료다.

거북목은 너무 늦지 않게 정형외과에 내원해 적합한 운동치료와 도수치료를 통해 자세 교정이 이뤄진다면 원래의 정상적인 C자형 경추를 되찾을 수 있다.

하남정형외과 김일신 원장

KCC, 고 정성영 회장 1500억 원 유산 환원



KCC그룹이 고 정성영 명예회장(사진)의 1500억 원 유산을 장학사업과 박물관 건립비 등에 환원키로 했다.

우선 정 명예회장이 개인적으로 보유했던 100억 원 규모 현대중공업 주식은 민족사관고등학교 장학금으로 기부한다. 2024년까지 매년 25억 원 규모로 4년 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정 명예회장이 남긴 KCC지분 5.05%와 KCC글라스 지분 5.41% 중 1400억 원 상당인 KCC 지분 3%는 서문화재단에 기탁해 소리박물관(음향기 전문 박물관) 건립에 쓴다. 그 외 남은 KCC 2% 지분 등은 장남 정몽진 회장과 3남 정몽열 KCC건설 회장이 각각 1%씩 상속받는다. 또 KCC글라스 지분 5.41%는 차남 정몽익 KCC글라스 회장이 물려받는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막내동생인 고 정성영 명예회장은 1958년 금강스레트공업이라는 이름으로 창업해 세계 서열 33위인 KCC그룹을 일궜다. 올해 1월 향년 84세로 세상을 떠나며 범현대가의 창업 1세대 경영인 시대가 막을 내렸다.

정정욱 기자



GKL 품·희망봉사단, 농촌일손돕기 참여

게이밍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GKL품·희망봉사단이 5월 31일 경기도 의왕시에서 '지역상생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사진)을 펼쳤다. '지역상생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은 농협중앙회가 주관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봉사활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입국마저 막힘으로써 근로자 수급이 더욱 어려워진 농가를 돕기 위한 행사다. GKL품·희망봉사단 30여 명이 감자 수확, 잡초 제거 등 농작업에 동참했다.



이마트, '바이오퍼블릭' 론칭 홍삼스틱·루테인 등 총 9종 구성

이마트가 1일 건강기능식품 자체브랜드(PB) '바이오퍼블릭(사진)'을 론칭했다.

브랜드명에 몸에 좋은 건강기능식품을 대중화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C스틱, 홍삼스틱, 루테인, 멀티비타민 등 총 9종으로 구성했다. 상품 가격은 멀티비타민 30일 4900원, 프로바이오틱스 50포가 9800원, 홍삼스틱 30포가 1만9800원으로 시중 판매 제품 대비 20~30% 저렴하다.

3일부터 노브랜드 전문점과 SSG닷컴에서 판매하며, 론칭 기념으로 30일까지 행사카드로 2만 원 이상 구매 시 5000원을 할인해준다. 또 6월에 2회 이상 구매하면 7월에 50%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을 준다.

남현우 이마트 건강기능식품 팀장은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며 "다양한 상품 출시로 이마트가 고객 건강 증진 서포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삼성바이오로직스 제3공장 전경. 사진제공 |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 코로나 mRNA 백신 원료도 생산한다

(메신저 리보핵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코로나19 백신의 원액 생산에도 나선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mRNA(전령RNA, 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원료의약품 생산 설비를 인천 송도의 기존 공장에 증설해 2022년 상반기까지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cGMP)에 대한 준비를 완료하겠다고 5월 31일 밝혔다.

송도 공장에 생산설비를 증설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mRNA 백신과 관련해 원료의약품부터 무균충전, 라벨링, 패키징, 냉장보관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생산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mRNA 백신 생산을 위한 설비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유한 1~3공장 중 어느 곳에 설치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5월 23일 미국 모더나사와 제공받은 백신 원액을 인체에 투여할 수 있는 최종 형태로 만드는 완제품 계약에 맺었다. 모더나의 코

나 백신은 mRNA 플랫폼을 활용해 개발된 제품이다. 삼성이 맺은 계약은 모더나가 제공하는 백신 원액의 바이알(유리병) 무균충전, 라벨링, 포장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원료의약품을 자체 생산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번 생산설비 증설을 두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의 협상이 원료 생산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모더나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백신원료를 위탁생산하지만 아시아 지역에서는 위탁생산 파트너가 없다.

mRNA 백신은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 정보를 담은 유전자를 몸에 주입해 항체 형성을 유도하는 새로운 방식의 백신이다. 기존 백신보다 비교적 안전하며 바이러스 항원 배양시간이 들지 않아 만들기 쉽고 시간이 절약된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온도나 주변 환경에 매우 취약해 취급이 지극히 까다롭다는 단점도 있다.

인천 송도에 관련 설비 증설 美 모더나와 기술이전 협상

모더나 백신 외에 개발된 mRNA 백신으로는 화이자 제품이 있고 독일 큐어백은 임상3상 실험을 하고 있다. 반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얀센 백신은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고, 노바백스는 재조합 방식 백신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생산설비 증설에 대해 "종합 바이오텍약을 장기적 목표로 삼은 데 따른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존립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확장된 생산능력을 통해 고객사가 새로운 mRNA 백신과 치료제를 더 빠른 속도로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연간 36만 4000리터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건설 중인 4공장이 완공되면 62만 리터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